‘500만 돌파’ 순천만정원, 전통시장과 상생

아랫장·웃장·청년야시장 등 연계 머무는 관광 만들기 박차
먹거리·문화예술 함께하는 인프라 구축…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이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하면서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의 명성을 얻고 있다. 지역 내 자치단체가 주도한 단일 관광지로 연간 500만명의 관람객을 공식적으로 유치한 첫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지역경제를 연계하기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순천지역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 정거장이 아닌 머물러 가는 순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브랜드 가치 입증=올해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은 50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국민 10명 중 1명꼴로 다녀간 것이다.

국가정원 지정일인 지난 9월 5일 300만명을 돌파한 이후 하루 평균 1만5000명, 주말 평균 4만 9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도 인기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와 연계한 체험학습과 테마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에만 4만여 명이, 전국 학교의 수학여행으로 26만여 명이 다녀갔다.

지난 6월부터 코레일에서 시작한 청춘남녀들의 자유여행 상품인 ‘내일로 티켓’ 전남 동부권 판매량도 역대 최대로, 지난 여름시즌에만 13만 5000명의 청년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했다.

◇순천만을 경험했다면 이젠 전통시장을 즐겨라=순천시는 전남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순천 아랫장에 다양한 먹을거리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야시장을 마련하는 등 머물러가는 순천 관광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순천 1호 야시장으로 개장되는 아랫장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4일 오후 4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시장을 즐길 수 있다.

순천시와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및 시장 상인회에서는 야시장을 통해 대형마트에 빼앗긴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고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다.

야시장에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무장한 20개의 가판대(매대)를 마련했으며, 운영자도 청년창업자, 다문화가정, 주부(여성경력 단절자), 저소득층에게 배정했다.

순천시민들이 순천만국가정원 누적 관람객 5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또 순천을 방문하는 청년 대학생을 테마로 한 장터인 청년야시장도 오픈을 준비중이다. 청년야시장은 조만간 역전 시장 인근에 개장할 계획이며, 청년의 참여와 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시장을 개장하면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청년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일 아랫장 야시장 개장식에서는 청년과 상인, 관광객이 하나 되는 플레쉬몹, 포차 퍼포먼스, 대학과 청년이 만드는 청년 노래자랑, 아고라 공연 등이 펼쳐진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061-901-80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 웃장도 주차장 확장 등 인프라 구축에 한창=순천 웃장 이용객과 관광객 편의를 돕기 위해 웃장 주차장 확장 공사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웃장 주차장은 기존 39면에다 60면이 추가로 건립된다.

시는 웃장 주차장 조성 공사를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원도심 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게 돼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교육의 질 높이고 연구지원 강화 주력”

박 진 성 순천대 총장 취임

“동북아시아의 꿈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비전으로 순천대학교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취임한 박진성(57) 순천대학교총장은 “순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행정의 효율화와 교육의 질 향상, 연구지원 강화, 교직원 복지향상 등 4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체육학을 가르치며 이론과 함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며 “순천대학교가 꿈꾸고 계획한 모든 이론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총장, 앞장서서 행동하는 총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순천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를 졸업 체육교육학 석사, 대학원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7년 순천대학교 교수로 임명된 후 학생부처장,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인문예술대학장, 사회문화예술대학원장, 교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과 합동공연

4·5일 문예회관 대극장서

순천시립합창단이 오는 4~5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마음의 하모니로 감동을 전한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안양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을 초청해 합동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 첫날인 4일에는 국립합창단 공연으로 C.Debussy의 French Contemporary Chorus(Trois chansons)와 Female & Mixed Chorus를 선보인다. 둘째날인 5일에는 1부 공연으로 순천시립합창단이 한국 가곡인 행복, 초혼(박성춘 작), 순천만(이영조 작)을 클라리넷과 함께하며, 2부는 순천시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 합동으로 G.Puccini의 Messa di Gloria를 공연한다.

이번 제71회 정기연주회는 평소 지역에서는 접하기 힘든 공연으로, 연합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두 합창단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혁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많은 순천시민들이 이번 공연 관람으로 마음의 풍요와 여유로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람권은 티켓링크(seller.ticketlink.co.kr) 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판매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061~749~8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만국가정원 벌써부터 내년 봄 단장

튤립 등 봄꽃 15만본 식재

순천시는 1일 “순천만국가정원 내 네덜란드 정원 등 5개소에 봄을 알리는 대명사인 튤립과 수선화 등 15만본을 식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튤립 35종 14만본과 수선화, 히아신스, 알리움 1만본을 ‘자연을 노래하는 정원’이란 컨셉으로 순천만의 요동치는 변화를 디자인한 트랜드와 접목해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3종이 더 많은 35종의 다양한 튤립 품종을 도입해 다양한 화색과 다른 초화류 다층식재로 입체적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튤립과 수선화는 백합과로 순천지역에서는 늦가을인 11월 중 구근으로 땅속 15㎝ 깊이로 심어져 다음해 2월까지 월동한 후 4월부터 아름다운 꽃으로 탄생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식재로 내년 봄에는 튤립을 비롯한 나눔숲 주변 유채동산 연출 등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봄꽃의 장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최근 봄을 알리는 대명사인 튤립과 수선화 등 봄꽃 15만본을 식재하고 있다.

순천시, 내일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실시

순천시는 “3일 오천동에 있는 자전거문화센터에서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자전거문화센터 개관과 함께 시민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기 동안 500여명의 시민들이 자전거 무료 교육에 참여해 이론과 기능을 익혔다. 이번 시험은 마지막 교육과정을 마친 2015년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험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교통안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비롯한 실제 도로를 재현한 자전거문화센터 내 주행코스 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을 치룬다.

합격자에게는 안전운전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시와 협약한 자전거 점포에서 자전거용품 구매시 10%의 할인혜택을 받게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순천 체육단체 통합 추진…내년 3월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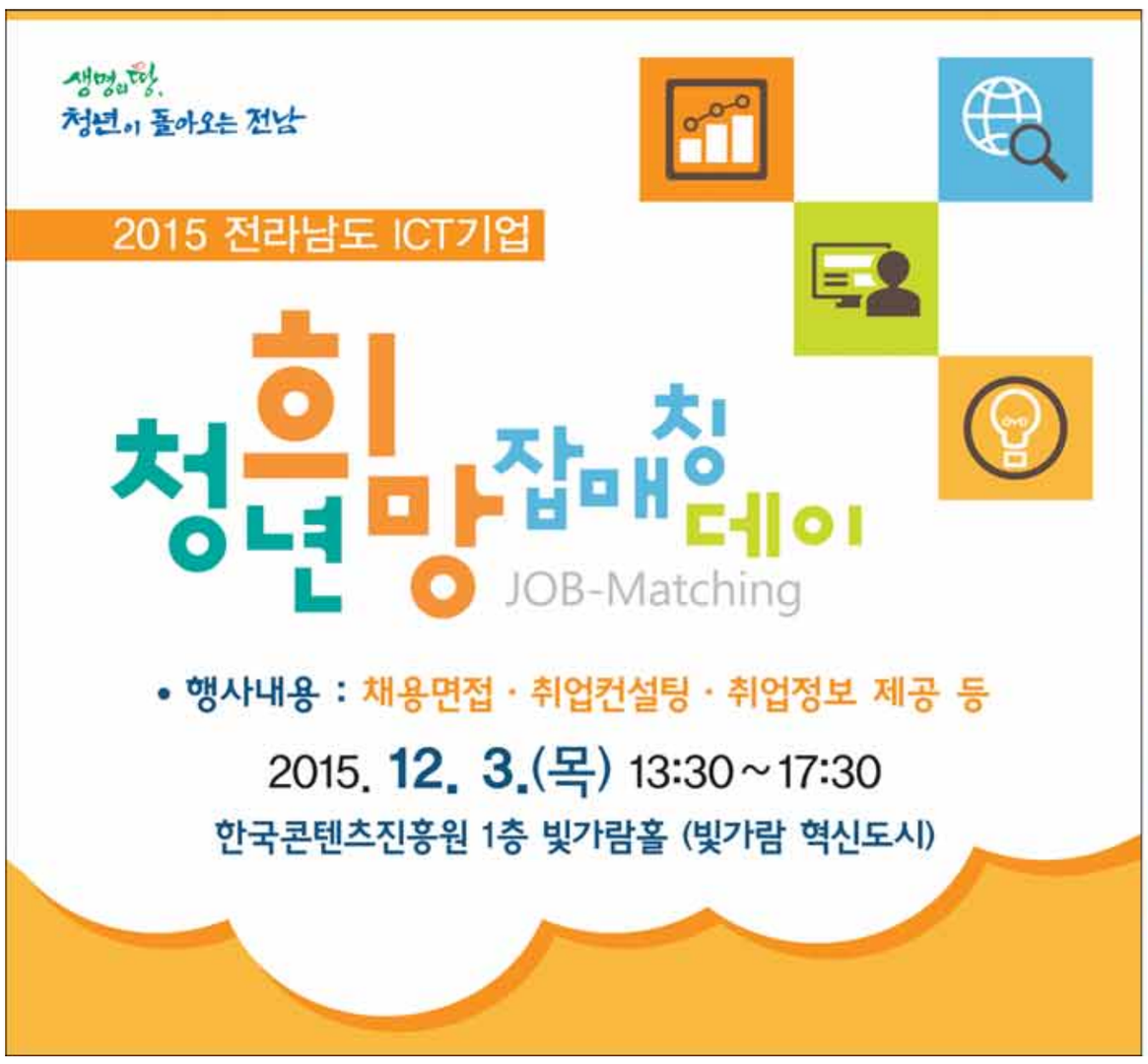
순천시는 1일 “현재 전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된 체육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5일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시청각실에서 양 체육단체 사무국장과 통합 대상 가맹단체장, 전무이사 등 90여명과 함께 통합 관련 설명회를 갖고 내년 3월까지 체육회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지역 체육인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통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는 또 양 체육단체와 함께 통합체육회 정관 개정, 사무국 통합, 이사회 구성 등 실무를 추진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스포츠산업과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통합추진위원회의 실무도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 일정은 내년 1월까지 가맹단체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2월까지 정관과 규정 제정, 창립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통합체육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순천시 체육회안에는 전문엘리트 체육 30개 협회, 생활체육 40개 연합회 등 70개 협회(연합회)에서 4만6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